

김관영 도지사, 국회 ‘예산전쟁’ 총공세

예결위간사-정책실장등 잇단 면담
전북 핵심사업 국비 반영 적극 요청
새만금·AI·문화 3대 현안 총력
박희승·도·시군 합동 캠프 구성

전북도는 김관영 도지사가 국회를 방문한 예산 및 정책 관련 핵심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새만금, AI, 문화예술 인프라 등 전북의 핵심 현안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보는 국회 예산심사 초기 단계부터 전북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설득함으로써, 실질적인 국비 확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방위 대응전략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예결위 간사, 김종수 정책실장, 조계원 국회의원(문체위·예결위) 등을 잇따라 만나 도가 추진 중인 핵심 사업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관련 예산이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우선 이소영 예결위 간사를 만나 ▲국립 모두예술문화센터 건립 ▲사료작물 종자 생산단지 구축 ▲새만금 상수도 간선관로 건설 ▲남원 경찰수련원 신축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김종수 정책실장과의 면담에서

는 ▲새만금 RE100산단 선도지역 지정 ▲협업지능 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새만금 국가 정원 조성 ▲전북권역 통합 재활병원 건립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등을 설명한 뒤 국가 정책과의 연계 필요성과 예산 반영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문화 기반 확충과 관련해서는 조계원 국회의원과 대화에서 ▲국립모두예술문화센터 건립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특화 분관 건립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등 문화 인프라 사업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전북자치도는 국회 대응을 통해 전북이 미래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청년 인구 유입, 문화·복지 인프라 확대 등 파급효과도 함께 노리고 있다. 새만금 개발의 지속 추진과 AI산업 육성, 지역 맞춤형 문화사업의 확대는 전북의 전략적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이를 위해 박희승 국회의원과 도·시군 합동 상주 캠프를 구성해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에 맞춰 대응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전북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주체로 도약해야 할 시점에 있다”며 “새만금, AI, 문화 인프라 등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의 미래 성장과 직결된 과제인 만큼,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투자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국가예산 확보
도는 김관영 도지사가 국회를 방문, 전북 핵심 현안사업 국가 예산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김종수 민주당 정책실장 면담(상) 조계원 예결위 의원 면담(하)

전북도, 세종시 국토부 청사서 ‘고향사랑기부제’ 매력 전해

대표 답례품·지정기부사업 소개
지역균형발전 가치 확산

전북도는 5일 세종 국토교통부 1층 로비에서 ‘전북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행사’를 열고, 전북의 대표 답례품과 지정기부사업을 소개하며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균형발전과 상생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정책철학과, 지역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부문화 확산이라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함께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홍보부스에는 천연꿀·참기름·추어탕·청차제품·친환경 돌솥 등 전북 대표 답례품이 전시됐으며, 땅콩·약과·떡·오미자즙 등 인기 답례품 시식·시음 코너도 운영돼 방문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홍보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정기부사업’의 의미와 가치를 집중 소개하며, 현장에서 바로 전북의 지정기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했다. 전북의 지정기부사업은 ▲가정위탁 아동용품 지원 ▲장애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등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내용으로 구성돼 기부자가 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대해 배경태 전북특별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국토교통부는 주거·교통·국토 균형발전을 책임지는 부처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맞닿아 있다”며 “국토 균형발전의 중심에서 전북이 가진 잠재력을 널리 알리고, 전북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안호영 위원장, 국회서 ‘덕유산 50년의 길’ 사진전 개최

안 의원·국립공원공단 공동 주최
“덕유산 50년, 생태보전 자부심”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4일 국회의원회관 2층 중앙로비에서 국립공원공단과 공동으로 ‘덕유산국립공원 지정 50주년 기념 국회 사진전’을 개최했다.

이날 전시는 덕유산의 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맞아 자연·문화·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고, 향후 보전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시는 오는 7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50주년을 맞은 덕유산국립공원은 ‘은혜롭고 덕(德)이 가득한 덕유산 속으로’를 주제로, 사계절 경관과 생태자원,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공존의 여정을 담은 사진 작품들을 선보였다.

개막식에는 안호영 위원장을 비롯해 김주영 간사, 박정 의원, 이용우 의원이 참석하여 행사를 축하했다. 또한 문정복 의원과 백혜련 의원도 전시장을 방문하여 관계자 및 지역 작가들과 함께 덕유산 보전과 지역 상생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안호영 위원장

정부 및 지자체 인사로는 김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황인홍 무주군수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더불어, 덕유산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이윤승·박봉진·김정숙 작가도 함께하여 작품 설명과 덕유산의 생태·문화적 가치에 대한 견해를 공유했다.

안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덕유산의 50년은 우리 국립공원 보전의 자부심입니다. 이 가치가 다음 세대에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기후·생태 보전과 지역 상생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공원은 자연 보전과 지역의 삶이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지난 50년을 지켜온 것처럼 앞으로의 50년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덕유산 국립공원의 역할과 향후 비전을 되새기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312억 규모...연내 신속지급

도민 1만 2천세대에 291억 지원
주택 침수·소상공인 지원금 상향
시설 복구비 등 국비 159억 확보

전북도가 9월 6~7일 발생한 기록적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에게 연내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이번 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피해를 입은 도민 1만 2,589세대에게 피해 유형에 따라 총 291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세대별 지원금 내역은 시군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

으며, 제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연 말까지 교부한다.

기재부와 행안부를 설득해 위로금과 보조금 단가가 상향됐다.

주택 침수 가구 지원금은 35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소상공인 지원금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됐다. 농·임·수산물 피해 지원율도 50%에서 100%로 상향돼 3,426세대에 위로금을 추가 지급한다.

이번 복구계획은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비 159억 원을 확보하며 총 312억 원 규모로 마련됐다.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재해복구자금 융자, 건강보험료·전기·통신요금 감면 등 24개

분야의 간접지원 서비스도 병행 추진된다.

당시 도내에는 평균 137mm의 비가 내렸으며, 군산 296mm, 익산 합라면 26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서북부 권에 집중됐다. 군산시는 7일 새벽 0시 57분 시간당 152mm를 기록해 기상관측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로 인해 10개 시·군에서 농작물 2,369ha, 주택 469동, 소상공인 점포 2,787곳 등 총 3만 175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액은 86억 원으로 전국 9월 피해액의 80%를 차지했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복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는 피해가

심각했던 김제시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에 피해 조사 연장을 요청했고, 직접 김제에 방문해 복구 계획 수립을 자문했다.

중앙합동 피해조사단과의 현장 점검에도 참여해 지역 실정을 설명한 결과, 김제를 포함한 8개 시·군이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를 통해 국비 159억 원을 확보하면서 지방 재정 부담을 줄이고, 시·군별 복구사업 추진 여건의 안정성도 확보했다.

공공시설의 경우 총 23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국비 9억 원, 도비 4억 원을 포함해 총 21억 원을 투입해 복구를 진행한다.

/장정철 기자

D 전북타임스

지역 뉴-스를 발 빠르게, 전북의 목소리를 담다

전북타임스신문!

우)54990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금암동),5층 https://www.jeonbuktimes.co.kr

282-9601
283-8800

전북,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관광 허브 도약 ‘탄력’

활성화·터미널 연구용역 중간보고
유치전략·관광연계 방안 논의
전국 8대 기항지도약 역량 집중
별도 20개 기관 TF 구성 추진

전북도가 2026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 신항만을 거점으로 국내 크루즈 관광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탄력이 붙었다.

도는 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활성화 및 국제 크루즈 터미널 조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크루즈 유치,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전북형 실행 전략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도의회, 새만금개발청,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전북문화관광재단, 14개 시군 등 관계기관 40여 명이 참석해 연구용역 추진상황 공유와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 ▲크루즈 선사·여행사 유치전략 ▲인센티브 제도 ▲CIQ(세관·출입국·검역) 운영방안 ▲관광자원 연계형 프로그램 개발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중이며 전북도는 이를 기반으로 새만금개발청, 군산해수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질적 유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 전북도는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기반을 쌓아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새만금개발청,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세관·출입국·검역기관 등 8개 기관과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크루즈 선사·여행사 대상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전담 TF를 구성해 연중 운영하고 있다.

또 올해 2월에는 김중훈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전북 크루즈산업 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 전문가·유관기관과 함께 추진과제를 논의하고 제주국



도는 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활성화 및 국제 크루즈터미널 조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제크루즈포럼 등에서 국내외 선사 대상 홍보를 강화해 왔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부산·제주·인천 등 기존 기항지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신규 기항지 발굴을 추진 중이다. 전북도는 지난 10월 ‘새만금 신항만’과 ‘격포항’을 신규 기항지로 신청하였고, 전국 8대 크루즈 기항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진=전북도>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도는 기존 TF팀과는 별도로 새만금 크루즈 관광 수용태세 확보 협력을 위해 14개 시군,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전북문화관광재단, 새만금개발청, 선사·여행사 등 2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올림픽도시’ 천명…스포츠로 세계 향한다

2025 올림픽도시 포럼 15일 개최
올림픽스타 전문가 참여 비전 제시
가장 한국적인 올림픽 과제 발굴

전북도는 오는 15일 2025 올림픽 도시 포럼을 개최하고 하계올림픽 유치와 올림픽도시 조성의 서막을 연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올림픽도시’를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 또는 올림픽의 가치가 시민의 삶·경제·외교로 이어지는 도시 플랫폼”으로 정의한다. 단순히 대회를 치르는 것을 넘어, 유치를 계기로 사람과 공동체, 환경과 경제가 함께 성장하도록 스포츠·문화·교육·도시정책을 연결하는 가치 기반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의미다. 또 올림픽을 통한 글로벌 협력과 경제

외교의 무대를 마련해 지역경제의 질적 성장과 국제 위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025 올림픽도시 포럼’ 유치 단계부터 올림픽 정신을 도시 시스템에 구현하는 출발점이다.

전북대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전북·전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해 하계올림픽 유치를 나섰음을 천명하는 자리다. 올림픽 스타들을 초청해 국민적 관심을 전주에 집중시키고, 각계 전문가들이 올림픽도시 조성의 방향을 제시한다.

기조 세션에서는 ‘올림픽과 도시’를 주제로 박주희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 이사장, 조현주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선다. 이정수(쇼트트랙)·서영우(봅슬레이) 등 올림픽 스타 및 대학원생 20여 명도 참석한

다.

박 이사장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인증을 받아 설립한 우리나라 유일의 ‘아시아올림픽대학원’ 주임교수이자 대한체육회 아시아스포츠앤버서터다. 조 연구위원은 올림픽학 전공자로 국제 스포츠 정책 및 스포츠외교 분야 전문가이며, 윤 원장은 40여 년간 국제 스포츠 외교통으로 활약하며 올림픽 운동과 스포츠를 통한 사회 변화를 이끌어 왔다.

전주대 태권도시범단 ‘싸울아비’ 공연을 시작으로 ‘세션 1’에서는 언론인들이 참여해 ‘가장 한국적인 도시, 가장 혁신적인 올림픽’을 주제로 논의한다. 올림픽도시를 지향하며 유치에 나선 전북·전주가 나아갈 방향과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다양한 제안이 도출될 전망

이다.

‘세션 2’에서는 올림픽 스타들이 총출동한다. ‘지속 가능한 한국 스포츠의 미래’를 주제로 이동국(전북현대 출신 축구선수), 오상욱(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 박윤기(前 쇼트트랙 국가대표) 등이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도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올림픽 가치를 실천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학교·체육계·기업·도민과의 협치를 통해 모두가 참여하는 ‘전북·전주형 올림픽도시’를 완성할 계획이다.

전북·전주가 하계올림픽 유치를 준비하는 국가대표 도시임을 대내외에 알리고, 각계각층에서 올림픽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한다.

/장정철 기자

김병기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반드시 지킨다”

내달 2일 처리 “정정보다 책임”
“대미투자 특별법 이달 중 처리”



김병기 의원

로, 교육은 맞춤형 학습으로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민

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고, 국민의 삶이 멈추지 않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무너지지 않도록 앞장서겠다”고 천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팩트시트가 완성되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마련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을 11월 중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이번 경주 APEC DML 성과가 산업으로 일자리로 그리고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목기자

익산서 홀로그램 엑스포…‘미래산업 빛의 물결’

20~22일 원광대학교서 개최
산업·기술·문화 융합의 장

전북자치도콘텐츠통합진흥원(원장 김성규)은 ‘2025 홀로그램 엑스포 HOLO WAVE’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익산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익산시가 주최하고 ‘홀로그램 산업 확산지원사업’을 통해 운영되는 이번 행사는 (재)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통합진흥원과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원광대학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기업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해 산·학·연·관이 협력하는 홀로그램 산업 및 기술 교류의 장이다.

‘미래를 밝히는 빛의 물결, HOLO WAVE’를 주제로 하는 이번 엑스포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홀로그램 산업 육성 성과를 도민과 공유하고, 문화·기술·산업이 융합된 새로운 홀로그램 산업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로 이를 통해 홀로그램 도시, 익산의 위상을 전국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20일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대형 홀로그램 전시 △VR 드로잉 쇼 △홀로그램 마술쇼 △미래기술 포럼 등 홀로그램 산업의 기술력과 예술성이 결합된 개막 공연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내부 공간인 전시 ZONE에서는 △대기업관 △홀로그램 타임관 △호러 홀로그램 전시관 △전북 대표 홀로그램 기업관 등 20여개 기업이 참가하는 산



‘2025 홀로그램 엑스포 HOLO WAVE’가 20~22일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열린다.

<사진=전북도>

업전시관이 운영되며, 체험 ZONE에서는 홀로그램 키트 만들기, 홀로그램 미디어페인팅, 홀로그램 포토존 등 홀로그램 기술 발전의 과정과 현주소를 알 수 있는 전시뿐 아니라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함께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도 마련된다.

외부 공간에는 신산업융합대전 ZONE, 푸드 ZONE, 굿즈 팝업스토어 등이 함께 운영돼 축제형 엑스포의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또한, AR 스탬프 랠리, 홀로그램 OX퀴즈 등 상시 이벤트와 버스킹 공연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상시 진행된다.

전북콘텐츠통합진흥원 김성규 원장은 “도민은 물론 전국의 기업과 청년들이 참여해 홀로그램 산업의 미래를 직접 체험하고 새로운 협력의 파도를 만들어갈 바란다”고 전했다.

/김은지 기자

전북자치도, ‘고병원성 AI 위험주의보’ 발령

‘철새 AI 주의단계’ 발령 이어
철새도래지·수변지역 방역 강화

전북도가 도내 철새도래지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됨에 따라 ‘철새 주의단계’ 발령에 이어 ‘고병원성 AI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가금농장 방역 강화에 나섰다.

도는 지난달 29일 군산 만경강의 야생조류 분변과 지난 3일 부안 고부천의 쇠오리에서 H5형 고병원성 AI가 확인됨에, AI 발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5일부터 위험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7일 전국적으로

AI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데 이어, 철새 이동이 활발해지고 도내 주요 서식지의 감염 위험이 커진 데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 도는 시·군과 관련 기관, 생산자 단체 등과 협력해 AI의 가금농장 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도는 철새도래지와 수변지역 주변 가금농가를 중심으로 방역차량을 총동원해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농가에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외부 차량·사람의 출입 제한 △출입 전후 소독 및 장갑·장화 교체 △소독시설·울타리·방조망 점검 △농장 주변 구서 작업 등 기본수칙을 강조했다. 또한 축산관계 차량에 대해서는 △

GPS 단말기 상시 가동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 금지 등 관리지침을 엄격히 이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군은 위험주의보 발령 사항을 신속히 전파하고 방역차량을 총동원해 철새도래지, 수변지역 등 위험지역 중심으로 소독을 강화한다. 방역본부는 가금농가 전화예찰 시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축협과 가금 생산자단체, 계열사 등도 회원 농가에 방역수칙 이행을 독려하는 등 기관별 협조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이재욱 전북도 동물방역과장은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검출되는 등 바이러스 유입 위험



전북도는 5일 ‘고병원성 AI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가금농장 방역 강화에 나섰다.

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농가와 축산관련시설 모두 한순간의 방심 없이 차단방역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일상속 온실가스 줄이는 방법

01
적당한
냉방/난방 온도
유지하기

02
비닐봉투 대신
에코백, 장바구니
사용 하기

03
걸거나
대중교통
이용하기

바이오진흥원, 전북 농식품 美 수출 실전형 지원

H마트 바이어 초청 상담회·전북 농식품 북미시장 진출 확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5~6일 양일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비즈니스센터에서 미국 최대 아시아인 식품 유통체인 H마트(H-Mart) 본사 바이어들을 초청해 '미국 H마트 바이어 초청 전북 농수산물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H마트는 미국 16개 주와 캐나다, 런던 등에 약 9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연간 약 26억달러(한화 약 4조5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북미 최대 아시아 식품 유통망으로 다양한 아시아 식문화화를 북미 시장에 소개하며 현지 소비자들에게도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

이번 상담회는 전북 식품기업 북미시장 진출 확대와 안정적인 수출 파트너십 구축을 목표로 마련됐다.

도내 농수산물 기업들이 H마트 본사 바이어와 직접 만나 제품을 소개하고, 시장 경쟁력과 진출 가능성에 대해 심층적인 피드백을 받는 실질적 비즈니스 미팅 형태로 진행됐다.

참여 기업들은 제과, 떡, 유아식, 간편식, 발효식품, 소스류 등 다양한 품목을 선보였으며, H마트 바이어들은 현장에서 직접 제품을 시식하고 포장·유통 적합성, 가격경쟁력, 품질관리 수준 등을 세밀히 검토했다.

또 제품 현지화 전략, 미국 내 규제 및 라벨링 기준, 유통채널 진입 절차 등 실무적인 조언도 함께 제시했다.

이번 상담을 통해 일부 기업들은 테스트 입점 및 샘플 납품 협의 등 구체적인 거래 논의가 이뤄졌다.

H마트 측에서도 "전북 지역은 전통식품과 프리미엄 식품 등 품질 경쟁력이 높은 제품이 많다"며 향후 제품군 확장에 전북 기업 제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도내 기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H마트 본사 바이어들을 초청해 '미국 H마트 바이어 초청 전북 농수산물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업들이 미국 유통현장의 니즈를 직접 체험하고, 글로벌 마켓 진출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었던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유망 해외 유통기업과의 연계를 지속 확대해 전북 식품의 해외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연결 통로를 계속 마련

하겠다"고 강조했다.

바이오진흥원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미국 내 주요 유통망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북미시장 내 브랜드 경쟁력 제고와 수출 확대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집트, 사회보장 분야 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 연금제도 정책·공동연구 등 협력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이하 공단)은 이집트 사회보험청(NOSI, National Organization for Social Insurance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과 연금제도 및 사회보장 분야 협력 강화 위한 양해각서(MOU)를 지난 4일 체결했다.

이집트 사회보험청은 연금제도를 포함한 사회보험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기관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 양국의 사회보장제도 발전과 행정역량 강화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15년 기획재정부 주관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 연금제도 관련 연수에서 인연을 맺은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계기로 △연금제도 운영 경험 △정책 정보 공유 △인력교류 △교육 △훈련 △공동연구 등 실질적 협력체계를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공단은 또 이집트 사회보험청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급여 △제도운영 및 개혁사례 △사회보장협정 등을 주제로 한 연수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현재 우리나라와 이집트가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교류의 확대가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공단은 이집트 외에도 2013년부터 베트남·필리핀·키르기스공화국 등 32개국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82회에 걸쳐 1255명에게 제도연수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은 한국의 국민연



국민연금공단은 이집트 사회보험청과 연금제도 및 사회보장 분야 협력 강화 위한 양해각서를 지난 4일 체결했다.

금 운영 경험을 전파하고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발전에 기여해 왔다.

김태현 이사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양국의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한층 공고히해 앞으로도 여러 국가들과의 제도 협력과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북은행 '최고 연 2.72%' 금리 특판 예금 출시

마케팅 동의 시 우대금리 창립 56주년 한정 판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창립 56주년을 맞아 '56th 창립기념 진심+ 특판 예금'을 5일부터 한정 판매한다.

창립 56주년을 기념하며 고객들에게

감사와 진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특판 예금은 마케팅 동의만 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간단한 우대 조건이 가장 큰 특징이다.

가입 시 별도의 복잡한 조건 없이 최고 연 2.72%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은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중 선택 할 수 있으며, 기본금리는 각각 3개월 연 2.50%, 6개월·9개월 연

2.60%, 12개월 연 2.62%이다.

여기에 마케팅 동의를 하면 0.10%의 우대금리가 더해져 최고 3개월 2.60%, 6개월·9개월 2.70%, 12개월 2.72%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총 판매한도는 3000억원으로 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되며, 가입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일반법인으로 가입액은 계좌당 100만원 이상 고객당 50억원을

한도로 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창립 56주년을 맞아 고객과 함께 한 시간의 의미를 되새기며, 보다 간단한 조건과 실질적 혜택을 담은 특판 예금을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통’과 ‘창업’ 연결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 개최

뷰티·헬스케어 등 7개 테마로 체험존 운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전북지역본부는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이하 전북청창사) '2025, Youth Start-up Festival'을 5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과거로부터의 '전통'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창업'을 연결해 전북청창사 15기 입교생들이 한 해 동안 준비해 온 창업 아이템을 검증받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올해 전시는 '7개 테마, 7번의 경험'을 주제로 뷰티, 헬스케어, 푸드 등 테마별 체험존을 운영했다.

전주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입교생의 제품과 기술력을 자연스럽게 즐기고 경험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마련했다.

참여자는 QR코드를 통해 베스트기업

에 모의 투자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며 응원하는 방식으로 이어지면서, 시민과 관광객이 청년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함께 평가하며 지역 청년기업의 잠재력에 대한 공감대를 넓혔다.

또 전북청창사 14기 졸업생이 직접 쇼호스트로 참여하는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입교생 제품을 전국에 알리는 판로 확보채널을 운영했고, 대기업 흡수병 MD와 벤처캐피탈 투자자(8명) 등 전문가가 참석하는 파트를 마련해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실제 유통 진입과 후속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지사는 "오늘 행사로 전북 청년기업들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며 "전북청창사는 사업화지원 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기업이 선택받는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



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전북청창사는 2018년 개소 이후 현재까지 340명의 청년창업 CEO를 육성했다.

이들의 누적 매출은 1,042억 원에 달하며, 78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전북청창사는 아이템 발굴, 시제품 제작, 판로개척, 투자 연계, 후속성장 지원까지 창업 전 과정에 걸친 지원 체계를 통해 전북지역 청년창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전기안전공사, 도서지역 전기설비 개선 활동

부안군 위도 일대 섬지역
환경정화·안전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5일 전북 부안군 위도 일대에서 수협중앙회와 함께 '도서지역 전기설비 개선·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섬지역 주민 전기안전 확보를 위해 진행됐다.

도서 지역 전기설비는 부식 속도가 빠르고, 전선에 쌓인 이물질로 인한 화재(트래킹 화재)의 위험이 육지지역보다 높다.

전기안전공사는 이날 위도 내 치

도마음을 방문해 노후주택 3가구를 대상으로 LED 전등 교체와 전선·차단기 등 설비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이어 오후에는 인근 위도 해수욕장 등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 활동도 진행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재난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탓에 위험 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며 "특히 재난 발생 시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산간 지역의 설비 개선은 실질적 재난 예방의 첫걸음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농식품부, K-푸드 시장 다변화 발판 마련

K-푸드+ 수출상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29일~3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푸드워크 코리아 2025'와 연계해 'K-푸드+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BKF+, Buy Korean Food+)를 개최했다.

농식품과 농산업 분야 수출 확대를 위해 전 세계 42개국 316개사(해외 바이어 89개사, 국내 수출기업 227개사)가 한자리에 모여 총 1649건 110백만불 규모 1:1 수출 상담을 실시했고, 이 중 35건 약 12백만불 규모의 업무협약(MOU)이 체결돼 전년도 9백만불 대비 약 30%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농식품 분야는 떡볶이, 만두, 막걸리, 포도, 인삼 등 28건 8백만불, 외식 분야는 종합 분식, 돈까스 등 3건 1백만불, 농산업 분야는 수직농장 솔루션 등 4건 3백만불 규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상담회에 농식품 수출기업들

은 최근 K-콘텐츠를 통해 더욱 인기를 끌고 있는 냉동 김밥부터 저당 치킨 소스 등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을 선보였으며, 외식 분야는 우리나라 맛집 가이드인 '블루리본 서베이'에 등재된 갈비, 국내의 7백여개 매장을 보유한 치킨 전문점까지 경쟁력 높은 K-외식 프랜차이즈 업체가 참여해 해외 바이어의 눈길을 끌었다.

미국의 월마트, 슐라이트 등에 납품하고 있는 바이어는 "지난해 한국산 수삼(인삼) 검역 타결로 인삼 제품을 찾고 있던 상황에서, 이번 상담회를 통해 GAP인증을 보유한 고품질 수삼 수출업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며 "향후 FDA 사전등록 등 수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번 수출상담회를 통해 수출기업들이 시장을 다변화하고 K-푸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전북농협-전북지리산낙농농협 '해피컨설팅' 실시

축산농업인 생산성 향상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전북지리산낙농농협(조합장 김재욱)은 4일 전북지리산낙농농협 본점에서 축산농가 50여명을 대상으로 '해피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전북지리산낙농농협 조합원 중 청년·후계 축산농업인을 대상으로 환경기 사료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양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세부특강을 제공해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해피컨설팅'은 전북농협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를 맞아 축산인의 경영마인드를 제고하고, 희망과 행복을 드리기 위해 기획했으며, 2025년에는 경영(경제특강), 신바람(마술, 레크레이션), 세무(세무특강)로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이 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이 잘 살고,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함께 웃고, 성장하는 전북농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전북교육청, 지역 네트워크 협력체계 강화

내년 3월 학생맞춤통합 지원법 시행 앞두고 관계기관 워크숍 열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맞춤통합 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 단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전북교육청은 5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지역 네트워크 구축 워크숍'을 열고, 학교 중심의 지역 연계형 학생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내년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대비

해 마련된 자리로, 학생의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다각적 영역에서의 맞춤형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업 기반을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14개 교육지원청을 비롯해 시·군청, 경찰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족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복지관 등 관련 기관의 실무자 1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학생 지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했다.

워크숍은 전북교육청의 학생맞춤통합 지원 정책 추진 현황 안내를 시작으로, 전 삼정중학교 이돈집 교사의 '학생맞춤

통합지원 이해 및 우수사례' 발표, 기관별 역할 인식과 협업 방안 논의, 지역별 실행 전략 수립 등으로 이어졌다. 소규모 그룹별 토의와 전체 공유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실현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기관이 연계·지원하는 통합 모델을 현장 중심으로 논의하며, 각 기관 간 협업의 실질적 방향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과 정보 공유 채널 구축의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오선화 전북교육청 미래교육과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원은 학교의 힘만으로 완성될 수 없는 정책이며, 지역사회 전체가 학생의 성장을 함께 책임지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정례적인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위기학생 조기발견과 맞춤형 지원이 한층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전북교육청은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 구조를 정례화하고, 학생 중심의 통합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 연계와 행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지속가능사회와 생활과학' 학술대회

미래 사회 대응 전략 논의

전북대학교 인간생활과학연구소(소장 노정옥 교수)가 '지속가능사회와 생활과학'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4일 막을 올린 이번 행사는 '2025 JBNU Research Fair'와 연계해 식품영양학·의류학·아동학·주거환경학 등 4개 분과가 참여하는 통합 학술세미나 형태로 열렸다.

전북대 인간생활과학연구소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학문적 성과를

지역사회 실천으로 확산하고, 생활과학 기반의 융합형 연구·교육 모델을 정립함으로써 전북대학교 글로벌 대학 전략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연구·교육 체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노정옥 인간생활과학연구소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각 분과의 전문성을 융합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실천적 연구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2025 전북 학생자치 페스타' 성황리 개최

학생 중심 민주학교 문화 확산의 장 열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주최한 '2025 전북 학생자치 페스타'가 5일 전주학생교육문화관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자치를 배우고, 가치를 나누다'는 슬로건 아래 학생이 직접 기획·운영·발표 전 과정에 참여한 도내 최초의 학생자치 행사로, 제96주년 학생독립운동기념일(11월 3일)을 맞아 진행됐다.

특히 제96주년 학생독립운동기념일(11월3일)을 맞아 도내 초·중·고 학생회장단, 학생자치 담당교사, 학부모 등 6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학생자치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

행사는 전라고 '소화기'밴드의 힘찬 축하 공연으로 시작해 2025년 학생자치 활성화 기여 학생 표창장 수여, 학생자치 운영 사례 나눔, 전북학생의회 의정 활동 공유, 연극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학생자치 운영 사례 나눔에는 △익산초(건강하고 민주적인 선거와 활동) △전주동중(가치로 엮은 학생자치 존중·환경·연대) △전주근영여고(자치로 바꾸는 학교, 라:빌드 프로젝트)가 참여해 1년 간의 자치 경험과 성취를 공유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다른 학교 학생 대표들과 직접 만나서 운영 사례를 나누니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배울 점도 많았다"는 소감을 전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맞아 전북 최초로 학생자치 페스타를 열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이번 행사가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주최한 '2025 전북 학생자치 페스타'가 5일 전주학생교육문화관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치를 배우고, 교육의 주체로 성장하는 다.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군산대, 진로·취업지원 'DO:DREAM' 열려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직무대리 엄기욱)는 오는 6일까지 이틀간 교내 제1학생회관 앞 광장에서 재학생 및 졸업생의 진로탐색과 취업지원을 위한 'DO:DREAM' 잡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잡페스티벌은 국립군산대의 대표 행사 중 하나로 지난 2018년도부터 시작해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이했다.

올해는 제41대 총학생회와 함께하는 행사로 총학생회의 슬로건인 'DO:DREAM'을 반영해 JOB을 찾기 위해 잡페스티벌을 두드린다는 개념과 DREAM JOB을 찾

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특히 전북은행, 새만금개발공사, 전기안전공사, 현대자동차, 오투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D현대이엔티, 세아베스틸, 세아씨엠, 로얄캐닌 등 공공기업 및 공공기관, 대기업, 지역 우수기업이 함께 참여했다.

국립군산대 오연풍 학생처장은 "학생들이 잡페스티벌을 계기로 좀 더 다양한 분야에 도전할 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향후 다양한 진로 및 취업 서비스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중등 학생평가 공정성·신뢰도 확보한다

학생평가 역량 강화 연수 성적관리 체계 확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에 나선다.

전북교육청은 5일 본청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도내 고등학교 교감 및 평가업무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학생평가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도교육청 업무담당 장학사들이 △대학 입시에서 바라본 성취평가제 △학업성적시행 관리지침의 중요성과 학생평

가 유의사항 △서·논술형평가 시대, 학교 평가관리체계의 변화와 대응 등에 대해 각각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이 연수를 통해 학교 현장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대한 이해를 돕고, 책임 있는 성적관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평가가 교육의 신뢰를 세우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평가체계를 혁신하고, 교원들이 평가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변덕스런 가을 날씨! 가을철 영양 관리법은?

충분한 수분 섭취

건조한 가을, 하루 8잔의 물로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주세요!

과식 주의

신진대사의 활발한 활동과 풍성한 먹거리로 인한 과식에 주의하세요!

양질의 단백질 섭취

큰 일교차에 의한 면역력 저하에는 양질의 단백질 섭취를 추천해요!

비타민과 무기질 섭취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면역력! 비타민과 무기질로 높여주세요!

군산시립예술단, 12월 18일 ‘2025 송년음악회’ 개최

가는 해를 아쉬워하고 오는 새해에 설레는 12월, 군산시립예술단이 ‘2025 송년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연은 오는 12월 18일 오후 7시 30분,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군산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이 함께 꾸미는 합동 무대로, 한 해 동안 보내준 시민들의 성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음악으로 따뜻한 연말의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명근 상임지휘자의 지휘 아래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선율과 풍성한 합창의 화음이 어우러져 감동과 환희의 무대를 선보인다.

여기에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트럼펫 연주자 성재장이 협연자로 함께한다. 음악회의 플레어리스트 면면도 화려하다.

크리스마스 시즌의 대표 클래식인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트럼펫의 화려한 기교와 오케스트라의 생동감이 돋보이는 ‘렘소디 인 블루’ 등 다채롭게 구성됐다.

군산예술의전당 심종완 과장은 “이번 송년음악회는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음악으로 따뜻한 감동을 전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온실가스 감축 실천 중심형 농업교육 시작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농업(저탄소농업)교육’을 시작했다.

지난 4일 농업기술센터 1강의실에서 시작된 이번 교육에는 친환경유기농업구회와 친환경농업에 관심있는 농가 4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총 4회 과정으로 오는 12월 까지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토양미생물의 이해 △유용미생물의 활용 등 저탄소농업 실현을 위한 실천 중심형 교육으로 구성됐다.

교육 첫날인 4일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저감형 영농을 실천하기 위한 토양미생물의 이해와 활용을 중심으로 다뤘다.

토양 내 탄소저장 기능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저탄소농업 실천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인 스스로가 탄소저감형 영농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친환경·저탄소농업 확산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시, 사회복지 컨퍼런스 개최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가치 나눠

익산시가 지역사회 복지공동체의 의미와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했다.

익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회(공동위원장 성시중·정현율)는 5일 익산시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에서 ‘2025 익산시 사회복지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1부 기념식에서는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6명의 유공자에게 표창이 수여됐으며, 제6~10기 공공위원장으로서 지역복지 발전과 협의체 활성화에 기여한 정현율 익산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2부에서는 익산시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다음세대분과 주관으로 ‘토닥토닥! 우리 마음 건강 어때?’ 토닥콘서트가 열렸다. 전문가 2명이 참여해 청소년 도박과 약물 중독 문제를 주제로 이해·예방·극복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어 실무협의체 교육기획분과 주관으로 제3회 민관협력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진행됐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과 사회복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함께 성장하는 복지공동체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익산시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세심히 살피는 따뜻한 복지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목포 국가철도망 지자체 공동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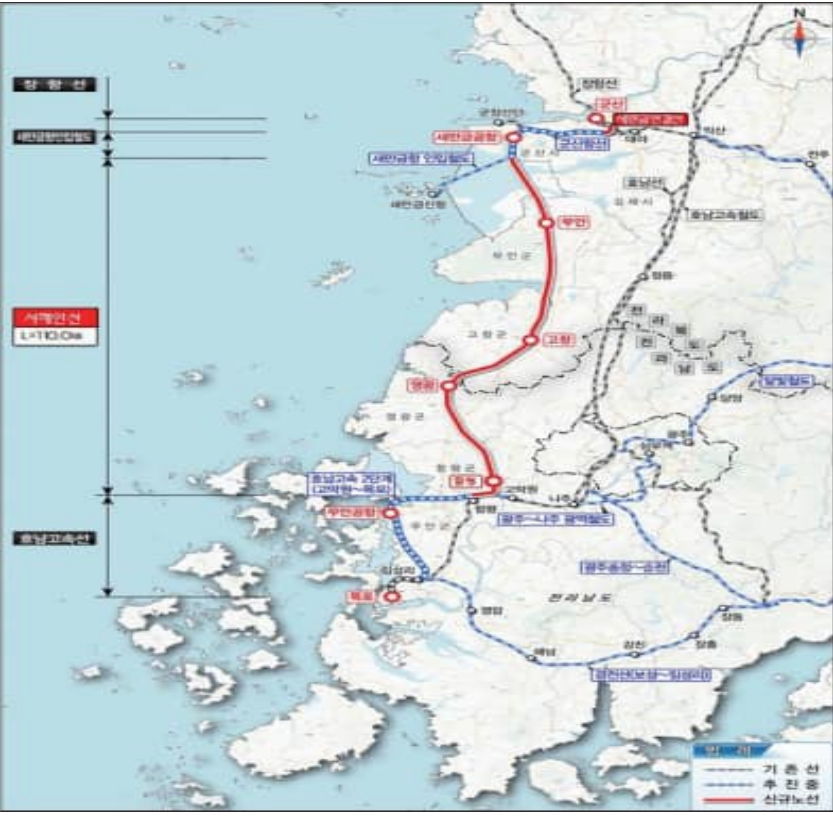
고창·군산·부안·영광 함평 5개 시군 단체장 사업반영 전의

군산시는 전북 군산에서 전남 목포를 연결하는 서해안철도(군산목포선) 건설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반영되기 위한 지역차원의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활동의 하나로 군산시는 5일 부안군·고창군·함평군·영광군 단체장들과 함께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면담,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서해안철도 노선은 총 연장 110km, 총 사업비 4조 7919억원 규모로, 서해선(서화성~홍성)과 장항선(홍성~군산), 새만금선(군산~새만금)을 잇는 서해안 철도축의 마지막 단절구간을 메우는 핵심 구간이다.

그러나 현재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년)에는 서해안 철도 사업이 ‘추가 검토사업’으로만 돼 있어 제5차 계획(2026~2035년)에서는 ‘신규 사업’으로의 반영이 절실한 상황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에서 목포까지 서해안철도가 건설된다면 서해선~장항선~새만금선~서해안선으로 이어지는 군산 중심의 서해안 남북축 철도가 완성된다”라며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서해안지역 주민의 인적·물적 교통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을 마친 후에도 협의회는 항

후 정례적인 간담회와 정책 건의, 국·과·정부 협의, 범국민 홍보 등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서해안철도 반영을 위한 전략적 활동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군산시 역시 다른 지자체와 함께 서해안철도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담길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다이로움 결제액 446억 기록

전달 대비 19% 증가 축제·소비 촉진 정책 성과

익산시가 시·군 통합 30주년 기념 시민화합대축전의 일환으로 추진한 다양한 소비 촉진 정책과 축제 행사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5일 익산시에 따르면 10월 한 달 지역사랑상품권 ‘다이로움’ 결제 매출액이 446억 여 원을 기록했다. 시가 지난달 국·과·축제 등 대규모 행사를 집중 개최하고 이와 연계해 지역사랑상품권 ‘다이로움’ 특별 혜택 행사를 진행한 결과다.

이는 전달인 9월(375억 원) 대비 71억 원(19%), 지난 8월(310억 원) 대비 136억 원(44%) 증가한 수치로, 지역 내 소비

활성화 전략이 실제 매출로 이어진 사례다.

다이로움 충전액도 크게 늘었다. 10월 한 달 소비자 직접 구매를 통한 다이로움 발행액은 541억 원으로, 전월(401억 원) 대비 약 35% 급증했다. 여기에 지급형 발행액 10억 원까지 더해지며 10월 총 발행액은 551억 원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러한 소비 활성화는 익산시가 시민화합대축전과 연계해 추진한 한시적 구매 혜택과도 연결된다. 시는 10월 한 달간 다이로움 구매 한도를 월 1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인센티브율도 13%로 확대해 최대 13만 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여기에 더해,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코리아 그랜드 세일’ 기간 결제금

액의 5%(60만 원 한도)를 정책 수당으로 추가 지급하는 등 최대 28%까지 가능한 추가 혜택도 이어가며 다이로움 인기를 견인하고 있다.

다양한 축제와 행사도 소비 확대에 힘을 보탤다. ‘익산천만송이 국화축제’는 76만여 명, ‘마한문화대잔치’는 2만 3,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반려동물축제, 돌문화축제, 보물찾기축제, 익산북페스티벌 등도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을 끌며 지역 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다이로움 발행액은 3,767억 원에 이르며, 연말까지는 4,500억 원 돌파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위축된 내수 시장을 회복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도심 속 ‘녹색 쉼터’ 일상화

도시·정원·복지 기능까지 특색 있는 도시숲 확장

익산시가 도심 속 숲을 통해 일상 속 녹색 쉼터를 확장에 나가고 있다. 단순한 나무 심기를 넘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녹색도시’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김형훈 익산시 녹색도시환경국장은 5일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총 42ha, 91곳에 도시·정원·복지 기능을 갖춘 특색 있는 도시숲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특색 있는 숲을 곳곳에 세

롭게 선보였다. 우선 남부권 대표 숲인 유천생태습지에 1ha 규모의 정원형 도시숲이 새롭게 조성됐다. 낙우송과 메타세쿼이아, 억새 등 다양한 수종과 초화류를 식재해 생태하천과 숲이 어우러진 입체적 경관을 연출했다.

특히 이 숲은 ‘2025 산림청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에서 산림정장상을 수상하며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황동면 석제품전시홍보관 일원에는 석제 전시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0.5ha 규모의 정원형 숲이 들어섰다.

시는 녹지축을 연결하는 도심형 숲길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인화동 폐

철도 부지에는 전라선 폐선 구간을 활용한 4ha 규모의 기후대응 도시숲이 조성되고 있다. 시는 내년에도 도시 곳곳에 새로운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용제동 대간선수로 일원(2ha), 신흥공원(1.7ha) 등에 기후 대응 도시숲을 새롭게 조성하기 위해 국·과·보에 주력하고 있다.

김형훈 녹색도시환경국장은 “숲이 일상이 되는 자연친화도시 익산을 목표로 도시 전체에 생태 녹지를 확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익산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지방재정혁신 모범도시’ 자리매김

지방재정전략회의서 재정운영 우수사례 발표

정읍시는 지난 4일 정부서충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지방재정 운용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재정혁신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지방재정국장, 지역경제지원국장, 전국 17개 시·도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

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및 ‘2026년 지방 재정 운용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읍시는 합리적인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국 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조직 효율화 및 예산 절감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학수 정읍시장은 “시민을 위한 절약, 미래를 위한 투자”를 주제로 조직개편과 관행타파, 사전심의 강화 등 효율적 재정운영을 통한 재원 확보 사례를 소개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 미식관광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12월 1일까지 응모

군산시가 지역의 미식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와 새로운 미식관광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2025 군산 미식관광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군산의 음식문화와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관광객에게 색다른 미식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응모 기간은 12월 1일 정오까지이며 개인, 기업 및 단체(4인 이내)

등 전국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군산의 미식자원을 활용해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행사 사업이다.

세부적으로는 △군산 주요 관광지와의 연계한 프로그램 △군산의 미식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프로그램 △군산에서만 즐길 수 있는 고유 음식 및 지역특산물 연계 프로그램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이메일(qhfsa789@korea.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환경친화도시로…청소 행정 강화

자원재활용 등 행정력 집중

익산시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 행정 강화에 나선다.

김형훈 익산시 녹색도시환경국장은 5일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자원재활용 촉진 등 3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우선 시는 시민이 깨끗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쓰레기 종량제, 노후 슬레이트 제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영농폐기물 처리 등 사업에 올해 346억 원을 투입해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2024년 집중호우 당시 발생한 수해 폐기물 2600톤을 국·비 10억 원을

확보해 처리하기도 했다.

농촌지역의 환경 보전에도 힘썼다. 슬레이트 철거 318동, 영농폐비닐·농약 빈병 수거 보상금 지원,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등으로 농촌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자원순환사의 실현을 위한 자원재활용 확대에는 146억 원이 투입됐다. 올해 시는 투병폐트병 189톤, 폐건전지 13톤, 종이팩 27톤을 수거하며 재활용률을 높였고, 공동주택 47개소에 음식물쓰레기 개별 계량장비를 교체·설치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유도했다.

김형훈 녹색도시환경국장은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실천하는 지속 가능한 청소 행정을 통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간부 공무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공직사회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정읍시가 간부 공무원 교육에 나섰다.

시는 5일 간부 73명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조직문화를 주제로 한 예방교육을 실시, 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책무성을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여성가족부 2025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에 따른 정부지침 실천의 일환으로, 이학수 시장을 포함한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초청 강사로 나선 유정훈 센터장

상 교육원 원장은 “건강하고 안전한

조직문화, 우리가 만듭니다”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유 원장은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 및 고충처리 시 관리자의 역할과 책무성을 강조했다. 특히 질의응답을 통해 성희롱 예방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며 공감과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이학수 시장은 “공직사회에서 감수성의 차이로 의도치 않은 오해나 불편함의 간극을 좁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관리자로서 한층 성숙한 인식과 태도를 갖춰 나가자”고 당부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 빈집정비사업 ‘순항’ 올해 64개소 정비

군산시가 진행중인 빈집정비사업이 순항 중이다.

시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의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 빈집정비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먼저, 도심·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도시 및 농어촌지역 내 1년 이상 빈집이 대상으로 호당 300만 원, 슬레이트 건물은 400만 원의 철거지원금이 지급된다.

해체 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신고비용도 5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노후·위험 빈집을 철거해야

하는 방치빈집정비사업의 경우 호당 400만 원, 슬레이트 건물은 500만 원으로 100만 원씩 철거지원금을 추가 지원해 소유자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해 작년에는 빈집 61개소를 정비했고, 올해는 64개소를 대상으로 정비를 진행 중이다. 이중 53개소는 이미 철거 완료 및 철거중이며, 11개소는 철거 준비 중이다.

시 관계자는 “남은 11개소의 철거도 차질 없이 진행해 군산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완주군, 탄소·수소 융복합 도시 도약 ‘발판’

한국탄소진흥원·완주수소연구원과 3기관 MOU…탄소·수소실증 결합 완주형 친환경 산업 생태계 구축

완주군이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완주수소연구원과 손잡고 탄소·수소 융·복합산업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수소경제도시 도약과 친환경 산업 전환의 발판을 마련했다.

5일 완주군은 완주군청에서 유희태 완주군수, 유경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 대행, 이흥기 완주수소연구위원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수소 융·복합산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기업 기술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완주군이 추진 중인 수소경제도시 전략의 핵심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 소재 기술과 수소에너지 실

증 역량을 결합해 친환경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탄소·수소 융·복합기술 공동연구 및 실증사업 추진 △지역기업 기술지원 및 상용화 촉진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 강화 △국가공모사업 공동 대응 등으로, 각 기관은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완주군은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 수소전기상용차 실증사업, 수소버스 및 충전소 구축, 수소연료전지 실증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수소산업의 실증 기반을 다져왔다.

특히, 완주수소연구원 설립을 통해 연구·시험·교육 기능을 아우르는 실증 체계를 완성하고, 정부의 수소특화단지 유지를 위해 전북도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왔다.

유경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 대행

은 “탄소소재의 기술력과 수소산업의 실증역량이 결합하면 완주는 대한민국 수소산업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흥기 완주수소연구위원장은 “완주는 수소산업 실증과 산업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도시”라며 “산업 전환과 에너지 혁신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기술·인력 양성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는 탄소와 수소산업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산업 기반을 갖춘 도시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완주형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탄소와 수소의 융합이 완주의 새로운 100년 산업지도를 열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완주군은 협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탄소·수소산업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노송로 간판개선사업’ 최종 선정

2026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 2억 투입 30개 업소 간판 개선

남원시 노암동 일대 ‘노송로 간판개선사업’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도 간판개선사업 공모에 1차 서류평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올해에 이어 연속으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2025년 동림로(향교오거리~동림교사거리) 구간에 이어 2026년도에는 노송로(노암동행정복지센터~한신아파트) 구간의 간판을 정비할 예정이다.

노송로 간판개선사업에는 200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30개 업소의 간판을 교체할 예정이며, 우수한 간판디



남원시 ‘노송로 간판개선사업’이 지난해 동림로 구간에 이어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사진=남원시>

대의 경관개선을 통한 새로운 활력소를 만들어 상권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노송로 거리 일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민선 8기 성과 점검…공약이행률 69.6%

2025년 공약이행평가 회의 개최 79개 중 55개 완료 도내 상위권

순창군이 민선 8기 막바지를 향하며 2025년도 공약사업의 내실 있는 마무리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지난 5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2025년 공약이행평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공약사업 담당 부서장과 양주철 단장을 비롯한 공약이행평가단원 등 총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년간의 공약이행 실적을 종합 점검하고, 공약 조정안에 대한 심의도 함께 진행됐다.

현재 순창군은 5대 분야 79개 공약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5년 3분기 기준 55개 사업을 완료하며, 공약이행률 69.6%를 기록했다. 이는 도내 지자체 중에서도 상위권 수준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변경이 승인된



순창군은 5일 3년간의 공약사업 추진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공약이행평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순창군>

안건은 총 3건으로 △순창 5대 명창 위상 선양 사업 △민속마을 일원 장독대 공원 조성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등이다. 해당 사업들은 공모사업 선정 및 사업성 검토 과정 등의 사유로 일정이 조정된 사례로, 군은 단순한 변경이지 만 군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

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지난해 무작위추첨 주민배심원 중 참여 희망 위원들이 함께 참석해 소통의 폭을 넓혔다.

또한, 전년도 공약이행평가 회의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에 대한 부서별 후속 조치 결과도 함께 공유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10일 누에 어울림마당서 대형 트리 점등

문화도시지원센터 ‘희망 트리’ 크리스마스까지 46일간 운영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는 군민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연말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북함문화지구 누에 어울림마당에 대형 크리스마스 희망 트리를 설치·운영한다.

이번 트리는 감성을 자극하는 컬러전구와 오브제 장식, 그리고 트리 주변을 환히 비추는 경관조명, 입구 아치, 은하수 포토존 등 다채로운 볼거리로 꾸며져 방문객들에게 따뜻한 겨울의 정취를 선사한다.

트리 꼭대기에는 ‘완주 희망 트리’라는 문구를 새겨 새해를 맞이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더했다.

오는 10일 오후 5시 30분, 간소한 축하공연과 함께 점등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군민과 관계자들이 함께 불빛을 밝히며 올 한 해의 수고를 나누고, 새해의 희망을 함께 기원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형 희망 트리는 10일부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는 오는 10일 누에 어울림마당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한다. 사진은 지난해 대형 트리. <사진=전북타임스>

터 12월 25일까지 46일간 점등되며, 연말연시 동안 완주군민과 방문객들에게 따뜻한 휴식과 포토존의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조준모 센터장은 “희망 트리를 통해 군민 모두가 따뜻한 연말을 보내고, 새해에도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동체의 빛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산불 예방 총력

파쇄지원단 11월~2월 집중 운영 환경 보호·일손 절감 두 마리 토끼

순창군이 추진 중인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이 지역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촌 지역에서는 수확 이후 콩대, 고춧대, 깨대 등 영농부산물이 다량 발생하며, 일부 농가에서 이를 불법 소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겹치는 겨울철에는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마을 단위 및 개별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을 직접 지원하

는 ‘파쇄지원단’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농부산물 파쇄를 희망하는 농가는 군에 신청하면 일정에 따라 현장 방문 후 파쇄 작업이 진행된다.

파쇄 지원을 받은 한 농가는 “예전에는 부산물을 직접 태워야 해 산불에 대한 걱정이 컸는데, 군에서 현장까지 와서 안전하게 파쇄해주니 매우 편리하다”며, “환경 보호와 일손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군민 여러분께서는 자발적 소각을 자제해주시고, 군 운영 파쇄지원단을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우체국 온라인몰 프로모션 이달까지 연장

할인행사 전산망 화재로 중단 11월 30일까지 연장 추진

남원시는 지난 추석 명절 기간(9월~10월) 동안 추진했던 우체국 소핑몰(mall.epost.go.kr) 내 남원시 농특산물 판촉 프로모션을 11월 30일까지 연장에 추가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지역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할인쿠폰 발행, 배송비 지원, 기획전 운영 등 다양한 프로모션 활동을 추진 해왔다.

그러나 올해 추석 기간에는 예기치 못한 정부기관 전산망 화재로 인해 일부 기간 동안 소핑몰 운영이 되지 않아 소비자와 농가 모두 불편을 겪

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농가 및 농특산물 가공 업체의 판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행사 기간을 11월 30일까지 연장하고, 할인쿠폰 재발행 및 특별기획전 운영을 통해 최대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명절 기간 농민 혜택을 다시 제공할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전산 장애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소비자와 농가 여러분께 깊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기간 연장을 통해 남원 농특산물의 판로를 넓히고 소비자분들이 다시 한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백금자 작가 크로키 선포

‘선의유희·dance!!’ 연말까지 작가 ‘크로키 23년 역사’ 한눈에

완주군이 전북특별자치도 명품 관광지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지난 4일부터 백금자 작가의 ‘선의유희·dance!!’ 전시를 시작했다.

백금자 작가는 크로키에 매료돼 지난 23년의 시간을 바탕으로, 인체의 아름다움과 예술적 교감을 시각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이번 전시는 ‘선의 유희’라는 주제를 통해 모델의 움직임에 따라 절제된 호흡과 속도, 강약의 조절이 만들어내는 리듬을 표현한다.

특히 하드보드지와 골판지를 활용

한 인체 드로잉, 수채화·아크릴·유화 물감과 먹·화선지를 이용한 중첩된 인간군상 작업 등 다양한 재료와 설치 실험이 돋보인다.

10개의 대형 현수막전을 통해 작가의 크로키 역사를 정리하고, 투명 및 색 아크릴을 활용한 모빌을 천장에 설치해 바람, 공기, 빛과의 조화를 통해 움직임의 극대화를 시도했다.

서진준 문화역사과장은 “이번 전시가 관람객들의 마음에 울림과 새로운 시선을 남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선의유희·dance!!’ 전시는 오는 12월 30일까지 삼례문화예술촌 제3전시관에서 관람할 수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 구이장수모정, 컨테이너에서 정담센터 1층으로 ‘새 둥지’

완주군 구이면 어르신들의 따뜻한 사랑방이자 공동체의 상징으로 자리해온 ‘구이장수모정’이 새로운 보급자리인 정담센터 1층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작은 컨테이너 한 칸에서 시작된 구이장수모정은 당시 지역발전위원회를 이끌던 이주갑 의원의 노력과 주민들의 정성과 참여로 만들어졌다.

구이장수모정은 비록 작은 공간이었지만,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답소를 나누고 안부를 챙기며 구이면의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이어가는 사랑방으로 성장했다.

이주갑 의원은 “구이장수모정은 특정 마을의 공간이 아니라 구이면 모든 어르신들의 쉼터이자 소통의 장”이라며 “이번 이전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이주갑 의원 주재로 구이장수모정 이전 관련해 장수모정 박관배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과 간단한 간담회를 갖고, 추진 일정과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새롭게 이전할 정담센터는 구이면 중심지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며, 내부에는 코인빨래방, 다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주민소통공간 등이 함께 조성돼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군민사회교육 수강생 작품전시회 ‘함께의 빛展’ 개최

순창군이 군민사회교육 수강생들의 1년간 교육성과를 담은 작품전시회 ‘군민의 배움, 함께의 빛展’을 오는 17일까지 옥천골 미술관에서 개최한다.

군민사회교육은 군민 누구나 여가선용과 자기계발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교육의 장으로, 군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생활양재 및 광목자수 기술교육 2개, 서예, 도자기공예 등 취미교육 9개 총 11개 강좌가 상·하반기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전시회는 수강생들이 1년 동안 쌓아온 배움의 열정과 노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서예 △사군자 △생활양재 △도자기공예 △광목자수 △미술 등 6개 강좌 수강생들의 작품 100여 점이 전시되어, 각 작품은 군민 개개인의 삶의 이야기와 창의적 표현이 어우러져, 지역의 문화적 감수성과 공동체 정신을 느낄 수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군민사회교육이 단시간 배움을 넘어 군민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보건소, 중장년 여성 마음건강 프로그램 운영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와 남원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박지영)는 이달 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관내 중·장년 여성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프로그램 ‘봄날의 햇빛’을 운영한다.

‘봄날의 햇빛’은 총 4회기로 진행되며, 중·장년 여성이 겪는 신체적·심리적 변화와 사회적 역할 전환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우울 및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조기 발견·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집단 기반의 심리·정서 지원을 통해 정서적 지지망을 형성하고 자기돌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중장년기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읍니웃을 활용한 정신건강검진, 스트레스 및 우울 예방교육,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힐링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되며 참여자들이 일상 속에서 스스로 마음건강을 돌보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용재 보건소장은 “중장년 여성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돌보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시니어클럽 공동체사업단 어르신들, 가을 나들이 여행

완주시니어클럽(관장 김대권)이 지난 4일 노인일자리 공동체사업단 참여 어르신 290명을 대상으로 '국립세종수목원'과 '청남대' 일원을 찾아 가을 나들이 문화활동을 진행했다.

어르신들은 다양한 꽃과 식물이 어우러진 국립세종수목원의 정원을 둘러보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했고, 이어 단풍이 절정을 이룬 청남대를 방문해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다.

이번 활동은 공동체사업단 참여 어르신들에게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고, 함께하는 즐거움 속에서 협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무리됐다.

김대권 완주시니어클럽 관장은 "이번 가을 나들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밝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활기찬 여가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임실 신덕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 바자회' 나눔 행사 진행

임실 신덕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정란)가 지난 4일 신덕면 복지회관에서 '신덕면 주민자치 바자회'를 열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바자회는 2025년도 신덕면 주민자치 자체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신덕면민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판매·기부 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재능기부로 다과를 나누고, 직접 만든 뜨개질 및 압화 작품을 전시·판매하며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며 공동체 의식을 되새겼다.

이번 행사를 통해 신덕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 참여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 사회의 상생과 연대의 가치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정란 위원장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이번 바자회가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장애인탁구선수단, 국제·전국대회서 잇단 쾌거

백영복 선수·김준오 선수 뛰어난 경기력 선보여

장수군은 장수군장애인체육회(회장 최훈식) 소속 탁구선수들이 국내외의 주요 대회에서 잇따라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지역의 위상을 높였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장수군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19일까지 열린 2025 아시아지역선수권대회에서 백영복 선수가 남자단식과 복식 부문에서 각각 동메달을 획득하며 국제무대에서 실력을 입증했다.

이번 대회는 국제 탁구연맹

(ITTF) 산하 아시아장애인탁구연맹(APTTF)이 주최한 아시아 최고 권위의 국제대회로, 세계랭킹 포인트가 반영되는 중요한 대회였다.

이어 같은 시기에 열린 제21회 서산시장배 전국장애인탁구대회에서는 김준오 선수가 남자단식에서 동메달을 차지해 국내 대회에서도 값진 성과를 거뒀다.

두 선수 모두 꾸준한 훈련과 열정으로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이며 장수군 장애인체육의 지력을 보여줬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독립운동가 박준승 선생 추모행사 개최

독립 정신·애국심 고취

임실군과 독립운동가 박준승선생기념사업회가 지난 4일 청운면 박준승 선생 추모공원에서 추모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유혜숙 임실군청 복지환경국장, 양주영 군의회 부의장 및 의원, 신경순 전북동부보훈지청장, 임실호국원장 등 유관기관 단체장을 비롯한 청운중학교 교장 및 학생, 유족과 지역 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준승 선생의 약력 보고를 시작으로 추모 제례 행사가 진행됐으며, 국권 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가치를 드높였던 박준승 선생의 위업을 기리고 독립 정신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심 민 군수는 "조국을 위한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박준승 선생을 비롯한 우리 임실의 호국 영웅들의 뜻을 계승 발전시키는 귀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한국육계협회 부안군지부, 닭고기 300마리 기탁

(사)한국육계협회 부안군지부(지부장 박용석)는 지난 4일 다가오는 부안군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닭고기 300마리(총 3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경기집체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탁된 닭고기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박용석 지부장은 "농가에서 정

성것 키운 닭고기를 지역사회와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기탁이 작은 나눔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의 건강과 따뜻한 일상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익현 군수는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는 한국육계협회 부안군지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탁된 닭고기는 소외계층이 한국육계협회의 운영을 느낄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성수 기자



여산일심신헌, 여산면에 겨울 이불 20채 기부

추운 겨울을 앞두고 5일 여산면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훈훈한 나눔이 전달됐다.

이날 여산일심신헌(부이사장 진금음)은 여산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겨울 이불 약 20채(17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여산면은 전달받은 겨울 이불을 독거노인, 저소득 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20여 명에 전달할 예정이다.

진금음 부이사장은 "도움의 손

길이 필요한 이웃들이 다가오는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정노 여산면장은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매년 이웃사랑을 실천해 준 일심신헌에 감사 드린다"며 "기탁받은 겨울 이불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진안군 주민자치위원장 일동, 장학금 1백만원 기부

진안군 읍·면 주민자치위원장들이 5일, 제16회 평생학습&주민자치 어울마당 행사를 기념해 따뜻한 마음을 모아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에 장학금 1백만원을 기부했다.

전달식에 참여한 최경자 진안군 주민자치협의회장은 "미래 희망인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고 학업에 전진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위원장님들과 뜻을 모았다"며, "오늘 전달한 장학금이 학생들의 성장 밑거름이 되어, 진안에 희망을 불어넣는 큰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춘성 이사장은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의 깊은 뜻에 감사드리며, 기부 해주신 장학금은 학생들이 경제적인 걱정 없이 오직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화답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완주 학교 밖 청소년, 제주도 '꿈드림 수학여행' 진행

완주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박현정)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아성장과 회복을 위한 '2025 꿈드림 수학여행 3차 바람철락 제주'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수학여행은 지난 4일부터 오는 7일까지 3박 4일간 제주 일원에서 열리며, 학교 밖 청소년 7명이 참여했다. 단순한 관광을 넘어 여행과 쉼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적 성장을 경험하는 치유형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예술 감상성 향상을 통한 청소년 성장 지원을 목표로 하는 '예감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참가 청소년들은 제주의 자연과 문화 속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기며 매일 저녁 자기이해를 주제로 한 집단상담을 통해 하루를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사진, 그림, 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며, 타인을 이해하고 또래 간 관계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완주=김명곤 기자

독감 주사 주의사항

예방접종 준비 시

- 건강상태가 좋은날에 받는다.
- 사전에 예약을 한다

예방접종 받을 때

- 아픈 증상이 있거나 만성 질환이 있다면, 의료인에게 말한다.
- 접종후 20~30분 이상반응이 있는지 관찰 한다

예방접종 받은 후

-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2~3일간 몸상태를 살핀다
- 고열,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 현기증이나타나면 병원에 내원한다.

〈一事一言〉



전북이 여는 농촌 회생의 길, 농어촌활력재단에 거는 기대

김관춘
논설위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전북농어촌활력재단’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조례 제정과 법인 등기 절차를 마치면 하반기쯤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말 행정안전부의 최종 승인으로 문턱을 넘은 이번 재단 설립은, 단순한 행정기구 신설이 아니라 농촌소멸 위기에 처한 전북 농어촌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한 이정표라 할 만하다.

작금의 농촌은 그야말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전국 농가인구는 2010년 306만 명에서 2024년 200만 명 수준으로 급감했고, 청년농업인은 같은 기간 69%가 줄었다. 전북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14개 시군 중 10곳이 인구감소지역, 13곳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마을이 사라지고 학교가 문을 닫으며, 고령화와 과소화가 생활 인프라 붕괴로 이어졌다. 문화를 비롯해 의료·복지·교육 등 기본 서비스조차 받기 힘든 지역이 늘어나면서 농촌과 도시 간 삶의 질 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위기의식 속에서 전북도는 농촌문제 해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문기관의 필요성을 오래전부터 인식해 왔다. 2015년 전북농촌융복합지원센터, 2017년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2019년 전북농어업농어촌 일자리플러스센터 등 다양한 형태로 대응해 왔지만, 위탁·보조 중심의 한계는 뚜렷했다. 사업의 공공성, 지속성,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에 전북도는 근본적인 구조 개편에 나섰다. 올해 3월 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를 구축하고, 4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전국교육훈련기관 지정을 받았다. 이어 10월 29일 행안부 승인으로 ‘전북농어촌활력재단’ 설립이 확정되면서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3박자 체계’가 완성됐다. 재단은 이들 기관을 통합 운영하는 실질적 구심점으로 기능하게 된다.

총 48억 원 규모의 예산과 3억 원의 자본금으로 출범할 재단은 올해 준공된 4층 규모의 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삼는다. 단순히 행정 보조기구가 아니라, 농촌경제 활성화·공동체 회복·생활서비스 개선 등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농촌회생의 플랫폼’이 될 전망이다. 도민 7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8% 이상이 지역발전, 일자리 개선, 생활여건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는 재단 설립이 단지 정책 차원의 조치가 아니라 도민 체감형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재단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농촌현장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탁상행정식 접근이 아니라, 마을 단위의 주민 주도형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 농촌문제는 외부 전문가보다 지역주민이 더 잘 알고 있다. 주민과 행정, 민간이 협력하는 ‘상향식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둘째, 청년 유입과 일자리 창출

이 병행되어야 한다. 고령화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주체는 결국 사람이다. 재단은 농촌 일자리와 창업 지원,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통해 청년들이 농촌을 새로운 기회의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농촌의 지속 가능성은 인구 구조의 회복에서 시작된다.

셋째, 농촌 삶의 질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다. 의료·돌봄·교통·문화 등 생활서비스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생존 인프라다. 재단은 이들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기획·운영하여, ‘살고 싶은 농촌’, ‘돌아오는 시골’을 만드는 촉진자가 되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행정 지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넷째,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체계 구축도 관건이다. 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지방비 의존을 넘어 중앙정부·민간 협력, 지역순환경제 기반의 자생적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 단기 사업 위주의 예산이 아니라 장기적 전략 프로젝트 중심의 투자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이번 전북농어촌활력재단의 출범은 단지 지역의 실험이 아니다. 전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농촌소멸 위기에 대한 선도적 대응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북이 성공 사례를 만든다면, 이는 곧 국가 차원의 농촌재생 정책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제도적 틀’을 넘어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실행력이다. 전북도가 그동안 쌓

아온 경험과 행정역량을 바탕으로, 재단을 실질적 변화를 이끄는 기관으로 육성한다면 농촌 소멸의 사슬을 끊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전국 최초의 농촌문제 해결을 고민할 수 있는 재단 설립을 승인 받은 것은 전북도가 농촌문제 해결 선구자로서 국가적 사명을 부여받았다. 보편적 농촌생활서비스 전달 체계를 잘 만들어서 활력 농촌 조성을 견인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북은 이미 ‘농생명 산업의 중심지’이자 ‘균형발전의 실험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농어촌 활력재단이 더해진다면, 전북은 ‘지속가능한 농촌 재생의 모델지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농촌을 살리는 일은 곧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일이다. 전북의 이번 도전이 전국 농촌의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

사설

새만금 신항만, 전북 해양관광의 새 물길 열자

전북자치도가 새만금 신항만을 중심으로 한 크루즈관광 거점화에 본격 나섰다. 내년 새만금 신항만 개항을 앞두고 크루즈 유치 전략과 국제 크루즈터미널 조성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는 전북 관광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전북도는 최근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활성화 및 국제 크루즈터미널 조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어 전북형 실행 전략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단순히 항만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전체의 관광 생태계를 연계해 새로운 경제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북은 그간 크루즈산업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왔다. 지난해 새만금개발청 등 8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선사·여행사 세미나 개최, 전담 TF 운영 등을 통해 실질적 유치 기반을 마련해 왔다. 올해는 ‘전북 크루즈산업 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 전문가와 유관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부산·제주·인천 등 기존 기항지 중심에서 벗어나 신규 기항지를 발굴하려는 시점에 전북도가 ‘새만금 신항만’과 ‘격포항’을 신규 기항지로 신청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새만금 신항만이 전국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지정된다면, 전북은 내륙 중심의 관광지라는 한계를 넘어 해양관광의 새 축을 형성할 수 있다. 더불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크루즈 관광객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며 전북 전역으로 관광 수요를 확산시키는 핵심 축으로 작용할 것이다.

전북은 이미 각 시·군이 독창적인 관

광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고창의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남원 광한루원, 무주 덕유산, 완주 로컬푸드와 예술인 마을, 익산 백제문화 유산, 군산 근대문화거리 등이 그 예다. 여기에 새만금 신항만이 더해지면 ‘바다에서 육지로 이어지는 전북형 관광 루트’가 완성된다. 크루즈 관광객이 항만에 내린 뒤 전북의 주요 관광지를 순환할 수 있도록 교통망과 체류형 프로그램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CIQ 인프라 구축과 통관 절차의 효율화, 외국인 관광객 맞춤형 서비스, 항만 인근 숙박·쇼핑·문화시설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 크루즈 선사와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마케팅과 인센티브 제도로 실효성 있게 마련되어야 하고 장기적인 산업 생태계로 발전하기 위한 관련 기관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다.

새만금은 이미 전북의 미래 100년을 열 핵심 전략지로 평가받고 있다. 그 위상에 걸맞게 크루즈산업을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는 것은 신의 한 수다. 이제 필요한 것은 속도와 실행력이다.

새만금 신항만을 전북의 ‘해양관광 관문’으로 만들어, 세계 크루즈 노선의 정기 기항지가 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해양관광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치밀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새만금 신항만에서 출발한 크루즈가 전북의 바다를 넘어 세계로 향하는 날, 전북관광의 지도가 새롭게 그려질 것이다. 이번 추진이 전북의 해양관광 르네상스를 여는 첫 항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문화재열전



부설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분류 - 기록유산, 민간문서
- 지정일 - 1992년 6월 20일
- 시대 - 조선시대
- 소재지- 부안군 변산면
- 내변산로 236-180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창간호 1992년 4월 4일 2025년 11월 6일 목요일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 (발행인)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양지시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시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발백지시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826-8049
송천지시-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JBT

전북타임스신문

도민의 제보가 지역사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기사제보-063)282-9600~3

https://www.jeonbuktimes.co.kr

30년 지방자치의 결실, 전북특별자치도가 열어가게 균형발전 시대 下

128년 만의 역사적 도약, 333개 특례로 여는 분권 새 시대
동부권 육성부터 새만금까지 광역-기초 협력모델로 균형발전 청사진
주민 중심 자율·책·지방 믿고 권한 넘기는 것이 진정한 자치

민선 8기, 2024년 1월 18일 공식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는 30년 지방자치 역사의 결실이자 새로운 도약의 시작이다.

지난달 27일 전북은 제주, 세종, 강원도에 이어 네 번째 특별광역자치단체로 전환하며 333개 특례를 확보했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독자적 발전 계획 수립, 행정·재정적 자율성 확대를 의미한다.

확보한 333개 특례는 교육, 산업, 문화, 복지, 환경 등 전 분야를 아우른다.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 시행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발전 전략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완성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와 함께 중요한 과제가 지역 내 균형발전이다. 도는 동부권특별회계를 통해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등 6개 지역의 인프라 구축과 산업 육성, 관광 개발 등을 지원하며 지역 간 격차 해소에 힘쓰고 있다.

2007년 시작된 도 산하기관 이전도 균형발전의 중요한 성과다. 인재개발원(남원), 산림환경연구원(진안), 축산연구소(장수), 보건환경연구원(임실), 도로관리사업소(순창) 등이 동부권으로 이전돼 지역 발전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2005년 도입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도를 적극 활용해 낙후 지역개발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

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각 시군의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특례는 전북 내 지역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례를 활용해 각 시군의 문화자원을 발굴·연계하여 전북 전체를 하나의 문화관광 벨트로 조성하는 작업도 병행 중이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 참여다. 2019년 본격 시행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주민들은 예산 심의에 참여하고 사업을 제안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직접 개진할 수 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22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도 지방자치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정책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민주적 거버넌스가 확립됐다. 집행부와 의회의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며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2023년에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역 주도 성장을 도모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민선 3기부터 추진된 새만금 사업은 전북의 최대 프로젝트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이다.

재생에너지클러스터, 스마트 수변도시, 관광거점화 사업, 종자산업혁신 클러스터 등이 동시에 진행되며 새만금은 명실상부한 미래 성장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투자 유치에서도 역대 최대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4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는 전북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계기가 됐다.

전 세계 한인 기업인들이 전북을 방문하며 투자 가능성을 타진했고,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특별자치도의 특례를 활용한 규제 완화, 신속한 행정 지원,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이 뒷받침된 결과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권한과 역량을 갖추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장정철 기자

[인터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지방자치 30년, 이제는
실질적 분권으로 지역이 답하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달 29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 30년은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나아가는 민주주의의 위대한 여정이었다”며 “이제 우리는 형식적 자치를 넘어 실질적 분권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방자치제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제도화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자리 잡았다”며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등 제도적 성과가 축적됐고, 공공기관 이전과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등 지역균형발전의 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권 교체와 12.3 내란 시도 대응 과정에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 있는 대응력이 국가 위기관리의 한 축으로 작용했다”며 “이는 지방정부가 단순한 집행기관을 넘어 국가 운영의 주체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은 128년 만의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지역 주도형 행정체계를 통한 실질적 분권형 지방정부로의 재탄생”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지사는 “지난 30년간 지방정부는 성숙했고, 스스로 지역을 책임지고 미래를 설계할 역량을 갖췄다”며 “이제는 중앙이 더 잘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지방을 믿고 권한을 넘기는 것이 진정한 자치이며 지속가능한 분권의 출발점”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선사에서 ‘균형 없는 성장은 없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된다’며 균형성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라며 “지역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강화를 위한 행정체계 개편 공약은 지방 주도의 자치 실현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제도 남아 있다”며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은 7대 3에 머물러 있고, 지방교부세 비율은 20년 넘게 동결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세수 추계 오류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이 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전국이 기회를 고루 누리고, 지방에 더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하신 만큼, 재정권은 지방정책 실행의 핵심이므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보조금 중심 구조를 넘어 지방세 확충과 교부세 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지역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균형발전이 실현돼야 지역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야 국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북은 광역-기초 간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치를 통해 지방자치의 실질적 주체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며 “주민 중심의 자율성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지방자치를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애로 시원하게 해결!

비즈니스 지원단

분야별 전문가 무료 상담 지원

방문/전화/인터넷 상담 가능 (063-210-6436~8)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민원실

상담분야는 매일 상이하므로 전화·방문 전 홈페이지 www.smes.go.kr/bizlink에서 근무일정 확인

창업 | 경영전략 | 마케팅 | 법무 | 금융 | 인사·노무 | 세무·회계 | 수출입 | 기술 | 특허 | 정보화 | 생산관리

